

심장기형 저체중 초미숙아 수술

서울대병원 金容珍교수팀 3mm대동맥 잇는 고난도 술기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金容珍교수팀은 지난 2일 복잡한 심장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체중 1.6kg의 저체중 미숙아를 심장 수술을 통해 살리는데 성공했다.

金교수팀이 수술한 김모아기(여)는 지난 2월19일 출생당시의 체중이 1.6kg인 초미숙아로

심장검사결과 대동맥이 단절되어 있는 중한 심장질환인 대동맥궁 차단형의 심장기형과 함께 전신의 영양상태가 나빠 오히려 몸무게가 줄어드는 상태여서 수술성공 가능성이 희박했다.

金교수팀은 심장수술시 원래 심장기능을 대신해주는 인공심폐기조차 정지한 초저온상태에

서 수술했는데, 30~40분 이내에 수술을 마쳐야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경이 3~4미리에도 못미치는 대동맥을 연결하고 심장내 동반된 기형까지 완전 교정하는데 성공했다.

김용진교수는 『아기가 워낙 작고 고난도의 술기를 요하는 수술이라 수술성공가능성이 낮은 상태였지만 수술이외에는 아기를 살릴 방도가 없어 수술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는데, 수술한지 10일이 지난 현재 아기는 인공호흡기를 떼고, 심장기능을 돕는 「PGE 5」도 끊었으며 스스로 우유를 먹는등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